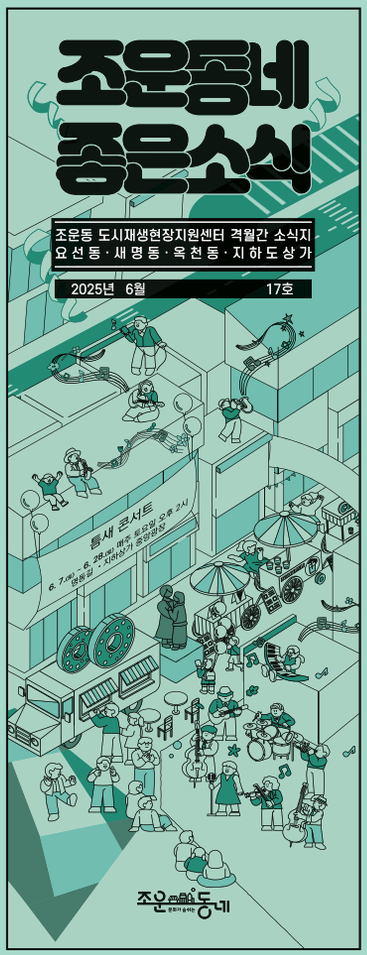
좋은 사람 모여라

MISSION
리모델링 후 소양극장의
새로운 이름은?



조운동네 좋은소식 17호를 보고
문제를 맞혀 주세요.

yeahey1011@wehago.com으로 정답과 연락처 발송
추첨을 통해 선정, 당첨자는 개별 회신 드립니다.

기간	2025년 6월 15일 부터 30일까지
발표	2025년 7월 1일
상품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조운동네 카카오톡 채널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조운동네 좋은소식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격월간 소식지
요선동 · 새명동 · 옥천동 · 지하도상가

2025년 6월 17호



조운동네 문화가 숨쉬는

CONTENTS

조운 게시판 1

그래도 조운 2

우리동네 기억지도 8

조운 미식회 10

조운 친구들 14

우리는 즐겁게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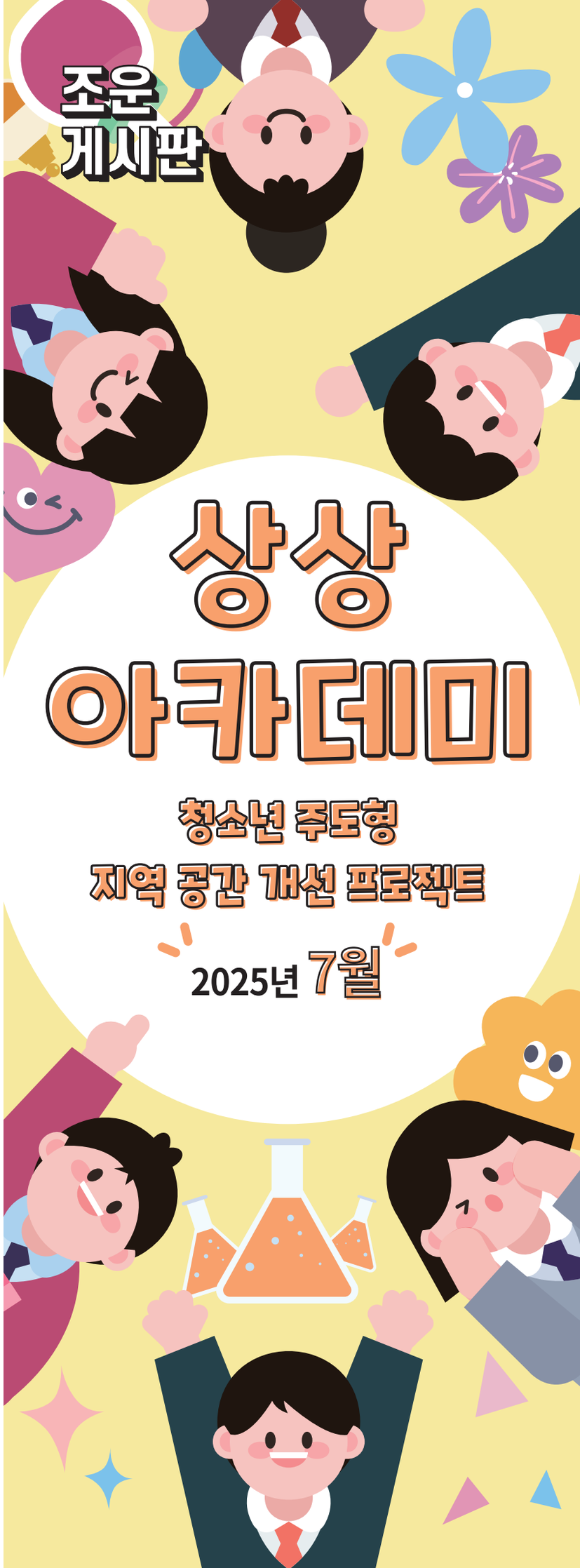
좋은 소식 17

창간일 2022년 4월 15일
발행일 2025년 6월 15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제작 도서출판 산책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8





그래도 조운

이 골목엔 아직,

카메라를 고치는 사람이 있다.

시간의 흐름을 묵묵히 견뎌낸 오래된 가게들이 있다.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동원카메라'와 '라이트사'는 빠르게 바뀌는 거리의 풍경 속에서, 굳이 눈에 띄려 하지 않는다. 세월은 흐르고 기술은 달라졌지만, 낡은 간판과 익숙한 문턱, 오래된 것들이 품고 있는 안정감으로 이 골목의 공기를 지키고 있다. 그 조용한 한결같음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든든한 풍경이 되었다.

춘천시청 앞 골목 한켠, '동원카메라'의 문은 언제나 조용히 열려 있다. 십여 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잡은 송영진 대표는 클래식부터 디지털까지 아우르는, 이제는 보기 드문 카메라 수리 전문가다.

젊은 시절 송 대표는 TV와 워크맨, 카세트플레이어 같은 전자기기를 다루는 기술자였다. 서울 독립문에서 대리점을 운영했고, 남대문 시장에서는 20년 넘게 장사를 했다. 워크맨과 카세트를 수리하다 자연스럽게 광학 장비인 카메라로 옮겨가게 됐고, 이후 '동원 펜탁스' 대리점을 열어 50~60명의 직원을 두고 큰 사업을 일구기도 했다.

전자에서 시작된 그의 이력은 카메라로 이어졌다. "필름 카메라는 노출기가 전자예요. 클래식 카메라만 하던 사람들은 전자를 몰라요. 난 전자를 아니까 고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카메라 수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전자기기 수리에 대한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골목에 오래된 카메라를 고칠 수 있는 곳이 남아 있다는 건,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다.

동원카메라가 춘천에 자리잡은 지도 30년이 훌쩍 넘었다. 초창기에는 중앙초등학교 근처에 있었고, 지금의 자리에는 2014년에 들어왔다. 당시에는 춘천에 사진관이 60곳 정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도 채 남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도 클래식과 디지털 카메라 모두 수리할 수 있는 곳은 더더욱 드물다.



단골들 중에는 총각 때부터 찾아왔던 손님도 많다. “사장님, 지금도 하세요?”라며 아이 손을 잡고 다시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서울에서 내려와 수리를 맡겼던 이들이 그의 기술에 감탄해 다시 찾는 일도 드물지 않다. “서울에선 수리비가 20만 원인데, 여긴 12만 원이면 돼요. 심지어 더 잘 고치고요.”

송 대표는 지방에서 카메라를 고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회상한다. “여기에도 사람 있고, 기술도 있어요. 클래식도, 디지털도 다 고칩니다.”

현재 송 대표는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군인 출신의 한 제자를 두고 “배움이 진짜 고속도로 일취월장이야”라며 애정을 드러내는 송 대표. 은퇴는 언제쯤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답한다. “건강할 때까지. 나이랑은 상관없어요.” 카메라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제자 못지않게 여전하다. 송영진 대표는 오늘도 고장난 셔터 너머로, 사람들의 지난 시간을 다시 꺼내주고 있다.

요선동의 사진관 ‘라이트사’는 수십 년의 기억을 인화해온 곳이다. 신인섭 대표는 2대째 가업을 이어 20여 년 동안 사진관을 운영해 왔다.

라이트사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 대표의 아버지가 처음 문을 열었고, 그때부터 일대의 필름 현상, 인화, 액자 제작을 도맡아왔다. 신 대표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도우며 자랐고, 2000년대 초 사진관에 디지털 장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어받았다.

당시 사진 산업은 급속도로 디지털화되며 큰 전환점을 맞고 있었다. 고가의 장비와 복잡한 시스템은 부모 세대에겐 큰 부담이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신 대표는 ‘내가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가게를 맡았고, 직장에 다니던 친동생도 함께하게 되었다. 그렇게 형제는 지금까지 한 공간에서 호흡을 맞추며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라이트사는 직접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진관이 됐다.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사진관을 물려받은 신 대표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라이트사는 직접 필름을 현상하고 인





화하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진관 중 하나다. 최근 필름 사진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띠면서 라이트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요즘은 한 달에 필름 롤이 150개 정도 들어와요."라며, 손님의 절반 이상이 10대에서 30대라고 강조한다. 한때 구식으로 여겨졌던 필름 사진이, 이제는 새로운 감성의 매체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신 대표는 "사진 관련 일은 다 해요. 돈 되는 건 다 하죠."라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경험과 사진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라이트사는 현재 신 대표의 동생이 웨딩 촬영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신 대표는 현상과 인화 등 사진관 전반을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사진관은 단순히 사진을 찍고 인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지역 사진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기획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춘천지부 활동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공모전 일정 접수부터 심사, 전시까지 두루 함께하며 사실상 춘천 사진 문화의 플랫폼 역할을 맡고 있다.

라이트사를 찾는 이들 가운데는 수십 년째 발걸음을 이어온 단골도 적지 않다. 사진 동호회 회원, 작가, 언론사, 관공서 홍보팀 등 오랜 고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중학생 시절 필름을 맡기던 한 학생은 성인이 되어 사진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후배가 되기도 했다.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 온 라이트사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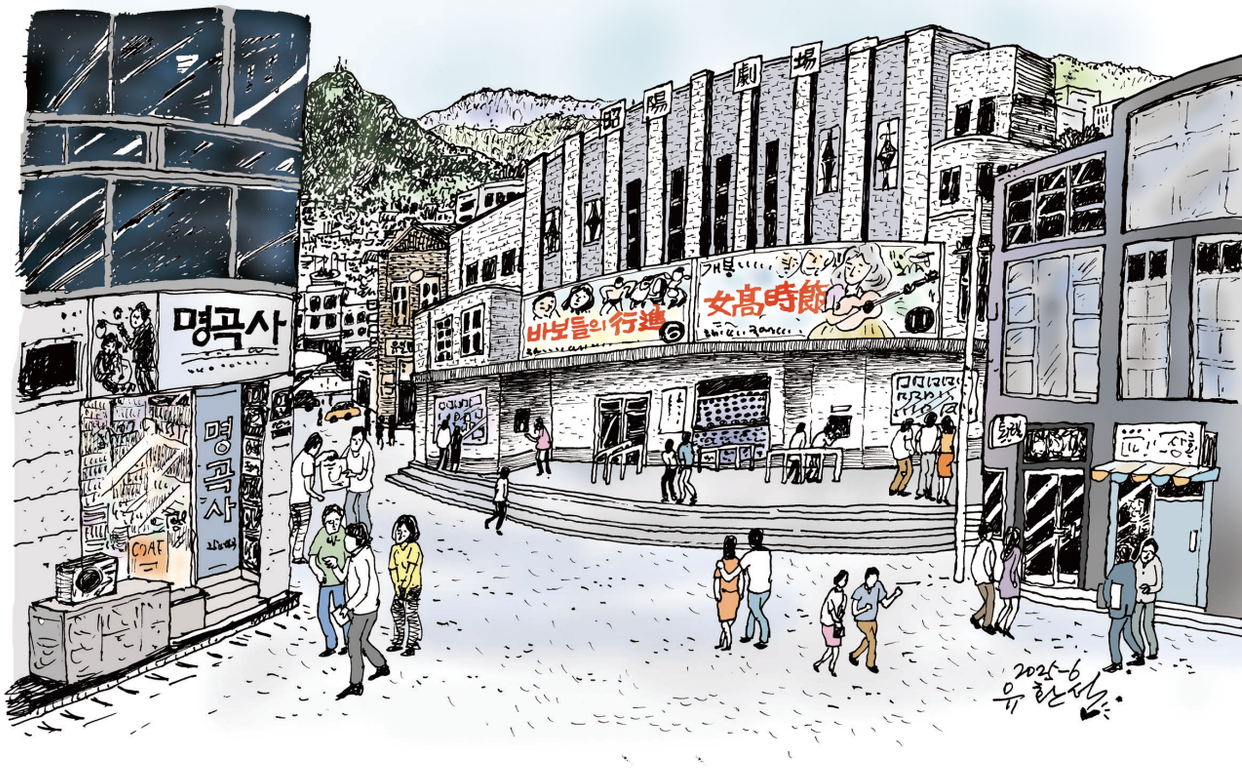
조운동에서 나고 자란 신 대표는 이곳을 "정이 많이 든 동네"라 말한다. 거리의 풍경이 바뀌고 익숙한 가게들이 하나 둘 사라져도, 그는 매장을 옮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동네에 뿌리내린 기억들과 오랜 인연들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분명 이 골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라이트사도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우리동네 기억지도

소양극장,

옛 춘천문화의 중심



춘천의 오래된 기억 속, 〈소양극장〉은 춘천 사람들의 문화의 중심지였다. 〈소양극장〉은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3년이 흐른 1956년 700개의 객석을 갖추고 처음 개관했다. 〈소양극장〉에서는 주로 흥행에 성공한 국산영화가 자주 걸리곤 했는데, 영화가 걸리면 극장 앞엔 표를 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다. 영화뿐만 아니라 어쩌다 TV에서만 보던 하춘화, 나훈아 등의 공연이 열렸는데, 그럴 때마다 춘천 도심에서 사는 사람들부터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까지 모여든 극장 앞의 들썩임은 축제분위기를 능가할 지경이었다.

극장 광장에서 명동으로 향하는 골목에는 '명곡사'가 있었다. 작지만 따스한 조명이 새어나오던 그 작은 음반가게엔 늘 음악이 흘렀고, 유리 진열장엔 LP와 카세트테이프가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인기 가수의 신보를 사기 위해 용돈을 아껴두었고, 음악에 조예가 깊으셨던 사장님께서는 늘 반기면서 최신음악 정보를 주시기도 했다. 그 시절 학생들은 오리지널 LP판이 비싸서 빽판이라 불리는 복제판 LP를 모으기도 했다. 좋아하는 곡을 선곡하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판매하던 시절이었다.

겨울이면 극장 앞 찐빵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찐빵을 사들고 명곡사 앞에서 흐르는 음악에 귀기울이며 극장 상영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다.

극장 옆 옛 춘여고로 올라가는 길목 초입에는 〈유일면옥〉이라는 불고기집이 있는데,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나 그곳에서 불고기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어려웠던 시절이었기에 성장기 춘천 학생들에게는 선망의 장소이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변변한 갤러리도 없던 시절, 지금은 유명 시사만화가가 된 유○○ 작가는, 소양극장에 그려진 간판그림을 보면서 화가로서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 그는 어렸을 적 극장 뒤 골목 안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화공들이 극장 간판을 그리는 모습을 몰래 엿보았다고 한다. 엄청난 크기의 화폭에 영화의 한 장면이 여과 없이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모습은 마술과도 같았다고 한다.

춘천의 친숙한 명칭을 사용한 〈소양극장〉은 1987년, 외관과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피카디리극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개관하였다. 〈피카디리극장〉이라는 이름을 단 간판이 올라갈 때, 그곳을 이용하던 많은 사람들은 아쉬움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극장 간판을 바라보기도 했다.

〈피카디리극장〉마저도 2011년 폐관으로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금, 낡은 간판, 오래된 포스터, 사람들의 웃음소리…. 소양극장의 풍경은 지금도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한편에서 잔잔히 살아 숨 쉬고 있다.

글_도서출판 산책 원미경

조운 미식회

조운미식회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매주
춘천 곳곳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만들게 된 모임입니다!

각 팀원의 입맛을 소개해 볼까요?

샌드위치 같은 빵 종류를 즐겨 먹어요.
떡볶이 제일 좋아하고 엽떡은 착한 맛만 먹어요.
향신료가 너무 센 음식은 좀 힘들어요.

해산물, 매운 음식, 향신료 등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밥이 제일 좋네요.^^
죽먹음식은 감자탕!

가리는 음식 거의 없이 다 잘 먹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초밥!
아 콩국수는 못 먹어요.X

무난한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은 못 먹어요.

바우하우스

옛날 경양식 돈가스가 생각나는 날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43번길 20
0507-1498-3771
돈가스 정식

문을 열면 바로 옛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바우하우스. 마늘빵과 수프로 속을 달랜 후, 샐러드로 산뜻하게
입맛을 돋우어 줍니다, 연이어 두툼한 돈가스, 식후 차까지!
풀코스로 즐기고 올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따뜻한 추억이 담긴 감성을 즐기고 싶다면 방문해 보세요~

코디님들의 한줄평

고기가 정말 두껍고 촉촉해요~ 오랜만에 경양식
돈가스 먹으니 추억이 새록새록

샐러드, 수프부터 후식까지 제대로 된 코스예요!
분위기도 좋고 돈가스도 두꺼웠어요ㅎㅎ

옛날 경양식집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대'는 돈가스 두 덩이가 나와서 양이 엄청 많았고
맛도 좋았어요~

오랜만에 먹어본 경양식 돈가스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샐러드부터 후식 차까지 같이 나와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기 좋아요!

샌드위치 일상

신선한 재료가 가득히 담긴 샌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67 101호
0507-1378-4980
크리미단호박 샌드위치, 치킨텐더 샌드위치

다양한 종류의 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는 이곳에서는 항상 깊은 고민을 거쳐 메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시도해 본 샌드위치가 모두 맛있어서 하나만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선한 채소가 가득 들어있어 든든하고 건강한 한끼로 충분해요. 포장 주문을 통해 빠르게 픽업도 가능하니 바쁜 하루에도 챙겨 먹을 수 있는 점심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코디님들의 한줄평

(통새우) 새우가 탱탱하고 바삭바삭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bbb

(단호박) 크림치즈와 단호박이 완전히 찰떡궁합!! 부드럽고 고소한데 살짝 느끼한가..싶을 때 중간중간 씹히는 할라피뇨가 최고의 킥(ʃ ˘ ل ˘)

(데일리) 달달한 감자샐러드가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로 간편하게 먹기 좋았어요~

(치킨텐더) 가득 들어있는 양상추와 치킨텐더의 조합은 말해뭐해..입니다ㅎㅎ 건강하고 알찬 한끼로 잘 먹었습니다! 미리 포장 추천드려용!

러빗

비주얼과 맛, 둘 다 잡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41-3, 2층
0507-1333-2927
오므라이스

얼마 전 오픈한 러빗에 다녀왔어요. 넓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쾌적해 좋았습니다! 기대했던 메뉴인 오므라이스는 정말 맛있었어요. 테이블에 서빙 후 오믈렛을 직접 갈라주십니다ㅎㅎ 입안에서 녹을 정도로 부드러웠는데요, 비주얼도 맛도 만족스러웠답니다~ 커피 맛집 칭호도 잘 어울릴 만큼 아메리카노가 향긋하니 꼭 마셔보세요.

코디님들의 한줄평

가츠산도는 흔하지 않아서 너무 궁금했는데 등심이 되게 두껍고 부드러웠어요~ 적당히 발려있는 소스랑 정말 잘 어울려요. 오믈렛도 부드럽고 파스타도 다 맛있는데 여긴 진짜 커피 맛집이에요!! 커피까지 테이크아웃 하면 완벽한 직장인 점심bb

오믈렛 파는 데가 많지 않아 오픈 준비 때부터 기대했는데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크림 파스타의 새우도 통통했구요. 평일 점심에 먹기엔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이지만 특별한 날이라면!

개인적으로 오믈렛 메뉴가 가장 기대됐고,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폭신하고 소스랑 잘 어울려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게도 넓고 깔끔해서 종종 방문할 것 같아요~



조운 친구들

상상언더그라운드 마19

혼례의 시작부터 끝까지, 옷을 넘어 전하는 마음

고전진의
박진옥 대표

어떻게 한복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고등학교 의상과에 진학하면서 처음 한복을 접했고, 대학에서도 전통 복식을 전공하며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게 됐어요.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전통복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가, 결국 고향인 춘천으로 돌아왔어요. 학생 시절부터 한복 외의 길은 생각해본 적이 없을 만큼 오롯이 한복 하나만 보고 달려왔고, 그만큼 애정도 깊고 책임감도 큽니다. 상호인 '고전진의'에는 제 철학이 담겨 있어요. '고전(古傳)'은 '옛부터 내려온', '진(眞)'은 '참된', 그리고 '의(義)'는 '뜻'을 의미하죠. 옷을 만드는 기술을 넘어, 사람과 삶의 의미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상상언더그라운드에 입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인사동이나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지에서 꾸준히 한복과 조각보 전시를 해왔지만, 정작 춘천에서는 이런 활동을 알릴 기회가 적었어요. 예전에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전시했을때 인연이 된 지음 규방공예 선생님의 제안으로 상상언더그라운드에 입점하게 됐죠. 다른 예술촌과 다르게 접근성도 훨씬 좋고, 사람들의 동선 속에 자연스레 노출될 수 있는 위치라 만족도가 높아요. 무엇보다 일상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좋아요. 전통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감정과 시간을 잇는 매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은 저에게 작은 전시장 그 이상이에요.



고전진의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한복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라 '보내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는 옷과 조언을 건넵니다. 맞춤 대여든 보자기 포장이든, 단순한 서비스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혼례를 준비하는 두 사람의 심리적 짐을 덜어주는 역할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걸 '혼례 준비의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옷이 몸에 잘 맞아야 편하듯, 누군가의 마음에도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정성과 진심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즐겁게



지하도상가에 위치한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이혜린 - 드로잉 한 컵
전시가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갤러리 상상언더 Zoom In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지하도상가에 위치한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이혜린 작가의 전시《드로잉 한 컵》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평생학습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따뜻한 기획으로, 작가는 “예술이 컵처럼 누구에게나 친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일상의 사물인 컵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작업실 ‘빌러비드’를 운영하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들과 그림을 나누고 있는 그는, 강이별이·춘천시립장애인복지관·하나린주간보호소·춘천평생학습관·남부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약 90여 명의 참여자와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약 한 달. 참여자들은 제한된 시간에도 진심을 담아 작업했고, 그 덕분에 전시장은 풍성한 그림들로 채워졌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소재로 예술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내가 좋아하는 미술의 얼굴을 찾는 일이 가장 멋진 일”이라 말하는 작가는 앞으로도 예술과 사회를 잇는 연결의 장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좋은 소식

틈새콘서트 시즌4

틈새콘서트 시즌4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명동길(1~2주 차), 지하도상가 중앙광장(3~4주 차)에서 공연이 진행돼요. 춘천 시민이 다 함께 즐기는 초여름 ‘청춘 라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033-250-4938 이예은 코디네이터

상상 아카데미

상상 아카데미는 지역 청소년과 로컬 크리에이터의 협업 프로젝트로 춘천 지하도상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간 개선 사업입니다! 플로리스트, 조향사, 시각 디자이너 등 직업별 실습 교육을 통해 직접 기획에 참여 후 작품을 제작할 예정이에요. 결과물 설치 전 팝업 전시도 열리니 꼭 참여해주세요!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

상상 한 여름

상상 한 여름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댄스,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청소년 공연, 상상언더그라운드 입주 작가님을 비롯하여 권역 상인분들과 함께하는 여러 수공예 체험을 준비했어요. 이외에도 스탬프 투어, 포토존, SNS 이벤트가 운영되니 무더운 8월 시원한 지하도상가로 놀러 오세요!

문의 033-250-4937 편지영 코디네이터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일정

6/1~6/15	Abstract Time, 추상적 시간
6/16~6/30	제12회 호반윤슬 ART전
7/1~7/15	물빛 사랑 동아리전
7/16~7/31	제20회 만천고을 묵향전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